

名前：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확실히 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대단한 일이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외국에 있는 친구와 메일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두 알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신문이나 잡지가 아닌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지금, 신문과 잡지는 필요한 것일까?

나는 우리들이 옛날의 전통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문이나 잡지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나는 책을 읽는 시간보다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많아 뉴스나 만화도 컴퓨터로 볼 때가 있다. 하지만, 그건 한가할 때 시간 때우기나 한순간의 흥미로 보는 것뿐이고 레포트를 쓸 때나 공부를 할 때는 신문이나 잡지, 책을 이용해서 정보를 모으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의 신용성 때문이다.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는 것은 속도다. 그 때문인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정보는 빠를 뿐이지 기사의 사실성이나 기자의 생각등을 찾기 힘들다.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라면 정돈된 글에 사건의 자세한 설명, 여러 사람의 의견, 그리고 기자의 생각등이 실려있는 것이 당연한 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정보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정보를 보관하는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한다. 책의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도 오랜기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한데 인터넷은 기계의 문제를 많은 자료를 전부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다.

그 외에도 교육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위의 2가지를 근거로 나는 신문과 잡지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1800字

名前：

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쉬운
것을 반드시 존재 이유가 있는 법이다.